

협회소식

본회 정기 이사회의 개최



본회는 지난 1월 25일 양돈회관 회의실에서 '95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의'를 개최했다.

20여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동용회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의에서는 ▲95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승인(안) ▲9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지부명칭 변경(안) ▲임원개선(안) ▲기타 총회에 부의할 사항 등을 심의했다.

이사회의는 일반회계 304,726천원, 홍보회계 435,944천원, 자조금회계 300,000천원, 제1검정소회계 909,224천원, 제2검정소회계 599,675천원 등 총 2,549,569천원에 달하는 '95년도 본회 예산(안)과 일반사업, 자조금사업, 지도사업, 홍보사업, 검정사업을 심의,의결하고 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이사회의는 행정구역 변경과 효율적인 지부 운영을 위하여 수원지부를 「수원·화성지부」로, 양산지부를 「부산지부」로, 부산·김해지부를 「김해지부」로 영주·영풍지부를 「영주·봉화지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양산지부가 부산지부

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양산군의 일부가 부산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양산서부지회가 양산지부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본회,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4개항 정부에 건의

본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양돈인들이 채택한 4개항의 대정부건의문을 작성,농림수산부에 건의했다.

본회는 건의문에서 “WTO체제하에서 돼지고기의 국제경쟁은 필연적”이라고 밝히고, 국제경쟁에서 양돈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현정부의 대선공약인 사료 및 동물약품에 대한 부가 가치세 조속 철폐 ▲농민 스스로 양돈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축산업 자조금법의 조속한 입법 ▲가축질병은 양돈 성패를 가름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외래성 질병의 검역과 종합방역위생대책 및 추진 ▲양돈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개선, 수출지원, 분뇨처리 시설의 적극적인 보조와 기술개발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본회,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의견서 제출

본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농림수산부에 제출했다.

본회는 의견서에서 돼지족은 현행과 같이 단적으로 절단해 달라고 건의했다. 본회는 돼지족을 장적으로 절단할 경우, 지육량이 7kg이나 감소하기 때문에 양돈농가들이 돼지 1두당 8천4백원의 손해를 본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이에 앞선 12월7일 부산소재 도축장인 태강산업과 김해축협에서 돼지족을 장적으로 절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본회에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었다.

본회,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본회는 지난해 12월 24일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농림수산부에 제출했다.

본회는 의견서에서 현재 종돈등록업자가 사육 종돈두수의 10%를 초과할 경우 2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던 것을 30%로 범위를 넓혀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본회는 정부가 종돈관리요령을 폐지하면서 종돈생산증명서를 3년간 보존토록 한 것과 관련, 현행 혈통등록부상에 종돈생산에 필요한 사항이 전부 기록되고 있으므로 이를 없애줄 것을 건의했다.

본회 '94년도 결산감사 실시



본회는 지난 1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이현윤, 유진현 감사로부터 '94년도 결산감사를 수감했다.

이현윤, 유진현 감사는 이번 감사에서 '94년도 일반사업과 지도사업, 자조금사업, 홍보사업, 검정사업계획대 실적과 예산계획대 집행실적을 감사했다.

또한 양 감사는 제1검정소를 방문해 검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시 감사도 벌였다.

'95년도 시무식 개최

본회는 지난 1월 3일 5층 대회의실에서 노영한 전무와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95년도 시무식을 개최했다. 노영한 전무는 시무식에서 “금년부터 WTO체제가 출범되고 MMA방식으로 돼지고기가 정식으로 수입되는 만큼,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노영한 전무는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만큼 협회가 앞장서서 양돈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업계를 리드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실력을 쌓고, 봉사정신을 가다듬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전동용 회장은 이날 해외출장 관계로 시무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제1, 제2검정소 검정돈 경매가격 하락

금년도 검정돈 첫 경매가 지난 1월 5일과 20일 경남 하동소재 제2검정소와 경기 이천소재 제1검정소에서 있었다.

139두가 상장된 제1검정소 경매에서는 6두가 유찰되고 133두가 낙찰되었으며, 평균가격은 691,135원이었다. 이 가격은 지난해 12월에 비해서는 13,034원 낮은 가격이다. 또한 105두가 상장된 제2검정소 경매에서는 105두 전부 낙찰되었으며, 평균가격은 547,047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177,762원이 떨어졌다. 최고 낙찰가는 제1검정소가 3백20만원(경기양돈 출품 랜드레이스),

제2검정소가 1백30만원(한국중돈 출품 대요크서)이었다.

김천지부, 돈육소비 촉진을 위한 양돈인의 밤 행사 개최

본회 김천지부(지부장 : 유진현)는 지난 해 12월 27일 김천관광호텔에서 돈육소비촉진을 위한 양돈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김천군내 시·군관계자와 축협조합장, 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김천지부 회원들이 참여한 수출단지 지정에 대한 양돈인들의 화합과 단합을 기하고,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통해 양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 요리방법 소개와 시식, 장기자랑, 수입개방에 따른 양돈인의 결의가 있었다.

홍성지부, 지부장 이·취임식 및 양돈세미나 개최

본회 홍성지부는 지난 1월 17일 홍성읍 소재 한마음예식장에서 지부장 이·취임식 및 양돈세미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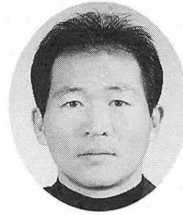
이날 개최된 이·취임식에는 본회 전동용회장, 노영한전무를 비롯하여 축협조합장, 도의원, 군 축정과장, 농촌지도소장, 지부회원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치뤄졌다.

전동용 회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업계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김병문 전지부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신임지부장에게는 우리업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전회장은 그동안 양돈산업 발전과 지부 활성화에 기여한 순환 초대지부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어 노영한전무를 연사로 『양돈산업의 현황과 '95년 경기전망』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홍성지부장에 김건태씨 선출



김건태 지부장

홍성지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지부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김병문지부장 후임에 김건태회원을 선출했다. 김건태 신임 홍성지부는 비전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지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전임 김병문 지부장은 충남도협의회장에 선출됨에 따라 사임했다.

청주·청원지부장에 이정길씨 선출



이정길 지부장

청주·청원지부는 지난 1월 3일 지부사무실에서 총회를 열고, 임기 만료된 유인종 지부장 후임에 이정길 회원을 새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이정길 신임지부장은 현재 청원군 남일면에서 5백두 규모의 양돈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지부 업무에 적극 참여해 왔다.

거창지부 사무실 이전

거창지부(지부장 : 김종출)는 지난해 12월 27일 지부 사무실을 이전했다.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272-4
- ▲전화 : (0598)944-8948
- ▲FAX : (0598)43-9948